심포지움-2(A)

약물용량과 반응간의 인종차

경상의대 약리 : 손동렬

약물반응의 개체간의 다양성은 임상 각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며 인종간의 약물반응의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그러나 인종간의 약물반응의 차이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이 다소 간과되어, 약동학적 및 약력학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인종에게 동일한 용량이 처방 되고 있다. 최근, 약물의 체내 변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약물대사의 유전적 다형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져, 인종에 따른 약물의 적정량 선택이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고있고, 약물인류학(pharmacoanthropology)의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실제로 동양인들은 정신과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신경이완제, 삼환계 항우울제, benzodiazepine 및 lithium 등의 치료용량이 백인에 비해 적으며 유해작용이 빈발한다. 또한 동양인들은 백인에 비해 propranolol의 β-차단효과 및 혈압저하의 정도가 더 민감함이 밝혀져, 약물반응의 인종간 차이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외국개발 의약품들의 국내 사용에 있어서, 한국인에서의 다각적인 약동력학적인 검토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용량의 선정이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1) Kalow W. Ethnic differences in drug metabolism. Clin Pharmacokinet 1982; 7:373-400.
2) Zhou H-H, et al. Racial differences in drug response. N. Eng J Med 1989; 320:565-570.
3) Sohn D-R, et al. Incidence of S-mephenytoin hydroxylation deficiency in a Korean population and the interphenotypic differences in diazepam pharmacokinetics. Clin Pharmacol Ther 1992; 52:160-169.